



지난 26일 오후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해안에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와 제주대학교 관계자 및 지역 주민들이 힘을 합쳐 파래 등 녹조 제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도 4·3추념 행사 '다채'

4·3범국민위원회 4·3평화재단 등 주관 아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지에서 추념식·전시회

제주4·3 제73주년을 맞아 서울 등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4·3 추모 행사가 마련된다.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4·3평화재단은 28일부터 온라인 4·3추모관(www.43people.org)을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내달 3일 추념식 당일에는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 추모공간에서 추념식을 갖는다. 추념식은 온라인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4·3범국민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광화문 광장이 폐쇄되면서 추념식 장소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으로 옮겼다.
 4·3범국민위원회 측은 "70여년 전 4·3수형인들의 기억을 품은 그곳에서 올해도 작은 추모의 마음을 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4·3범국민위원회와 재경 유족청년회는 3일 서울 성북구민회관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제도 개최한다. 또 내달 10일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는 4·3추념 전시 '봄이 암수다' 정가악회 공연을 펼친다. 경기아트센터 갤러리에서는 이날부터 17일까지 4·3 관련 전시회도 연다. 이들 행사는 모두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참여 인원을 제한해 열릴 예정이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제주바다 불청객 해조류로 '몸살'

팽생이모자반 2월 중순 기해 작년 유입량 넘어서
 지난 21일 동중국 북부해역서 500만t급 군락 발견
 파래도 추구장 280개 면적 발생... 저감 연구 돌입

팽생이모자반에 파래까지 제주 섬이 해조류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동중국해 북부해역에서 대규모 부유성 팽생이모자반이 관측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관측은 지난 14일과 21일 미국 위성의 영상자료를 분석해 확인한 것으로, 흑산도 서쪽에서 동중국해 북부해역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약 200만t~500만t의 팽생이모자반이 분포된 것이 포착됐다.
 해당 팽생이모자반은 대기가 불안정한 환경기에 급격한 풍향의 영향을 받게되면 제주를 비롯한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수산과학원은 내다보고 있다.
 실제 과거 3월 말에서 6월 사이 동중국해에 분포하던 대규모 해조류 군락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된 사례가 있다.
 이와 관련 올해 2월 21일까지 제

주에 유입된 모자반은 약 8100t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수거된 5186t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수산과학원 관계자는 "팽생이모자반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른 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향후 위성, 수산과학조사선, 드론 등 관측수단을 통해 연안으로 유입되는 부유성 해조류를 사전에 탐지,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의 골칫덩이인 파래에 대한 저감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는 지난 26일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해수욕장 일대에서 파래 수거 작업을

수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작업은 파래 주유서식지에서 조기 수거를 실시할 경우 '파래 대발생'을 얼마나 저감할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신양해수욕장은 매년 여름 파래 대발생으로 인한 악취, 해양생태계 불균형 등 각종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파래 누적 발생면적은 200만㎡로 추구장 280개 규모에 달한다.
 제주연구소는 "파래 발생량은 3월이 가장 적고 수온과 일사량이 많은 6월에 최대로 나타난다. 3월 집중적 수거에 따른 발생량의 변화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제주자치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제4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원

기존 수혜자 50만원 추가 지원
 신규 대상자에게 100만원 지급
 내달 12-21일 사이 신청 접수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기존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50만원, 지원받지 않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100만원을 지원받는다.
 우선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한 신규 대상자는 온라인 접수기간인 내달 12일 오전 9시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현장신청은 내달 15일부터 21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들에 대한 신청 안내 메시지가 발송되고 있다.
 특히 계좌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에는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covid19.ei.go.kr)을 통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지급계좌 변경 ▷지급계좌가 압류된 경우 ▷기존에 타인명의 계좌로 지급받은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번호 오류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 중 별도로 지급계좌 변경 등을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돼 기존 신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바탕목자금 플러스(중기부) 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수령 거부 신청이 가능하다.
 추가지원금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일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강대희기자 dhkang@ihalla.com

"대선 대비 특별도 헌법적 지위 확보" 제주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제7차 회의서 주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지난 25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등의 추진 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특별자치도 제도추진단으로부터 지난해 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 주요활동과 올해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향후 자치분권 추진방향과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김진호 위원장과 김경수 부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제주도 지방자치분권협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제주도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지방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과 지방분권 촉진활동 등 자치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날 보고된 올해 자치분권 주요



서귀포 치유의 숲 - 맨발치유길



웰빙과 행복, 건강이 어우러진 웰니스 관광.
 서귀포시는 아름다운 자연과 마을의 자원을 엮어 '웰니스 관광' 도시를 만들어갑니다.

건강과 힐링을 통한 여행의 즐거움,
 서귀포에서 만나세요.



숲 치유



We 호텔 스파



취다선 리포트 평상

가족과 함께 느끼는 제주의 봄길 '가족추천코스' :: 녹산로 유채꽃(드라이브) → 조랑말체험공원 → 유채꽃프라자 → 성읍민속마을 → 표선해수욕장